

조사 ‘에게’와 결합하는 무정물 명사의 유정성 연구

한승규*

1. 서론

유현경(2007:263-264)은 조사 ‘에게’를 유정성을 부호화하는 표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유정성이 [±alive]의 의미 자질만의 문제로 보아 온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에게’는 명사의 유정성 의미 자질을 활성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화자의 판단에 따라 명사가 나타내는 유정성의 정도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유현경(2007)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여 조사 ‘에게’가 화자의 유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무정물 명사가 유정성을 부호화하는 표지인 ‘에게’와 결합된다면 그것은 화자의 판단에 의해 유정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정물 명사가 유정화되는 현상을 살피기 위해 무정물 명사와 조사 ‘에게’가 결합한 예를 분석한다.

(1) 가. 버스는 가끔 전용 차선으로 끼어드는 승용차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칠게 움직인다.

나. 마침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에게 매료되어 있을 때에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호화로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1가)의 ‘승용차에게’는 엄밀히 말해 ‘승용차에 탑승한 운전자에게’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환유(換喩)로 해석할 수 있다. (1나)는 의인화된 조각상에 감정을 느끼며 인격을 부여한 의인화로 볼 수 있다.¹ 이러한 예는 화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나타나나 무정물 (inanimate) 명사가 유정성(animacy)을 획득한 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법이 한국어 화자들에게 용인이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 한국어 사용에 있어 무정물 명사가 유정화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예를 분석하여 한국어에서 무정물 명사가 유정화되어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¹ 이러한 무정물 명사에 대한 환유나 의인화는 Yamamoto(1999)나 김형정(2010) 등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2. 유정성의 개념과 유정성의 부호화

2.1. 유정성의 개념

어떤 개념이 유정적(animate)인 것인가 비유정적, 또는 무정적(inanimate)인 것인가는 그 개념이 가진 의미적 속성과 자질에 해당한다. 사람이나 동작성을 띠는 동물 부류는 [+animate] 자질이 나타나며 유정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적인 사물과 추상적인 개념은 [-animate] 자질이 나타나며 무정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정성(animacy)이란 이러한 의미적 속성과 관련이 있으나 그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유정성은 유정적 속성의 유무로 판단될 수 있으나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유정성은 개별 언어에 따라, 혹은 화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² 김형정(2010)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유정성은 본래 언어학적이라기보다는 언어 외적인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분법적으로 유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개체의 ‘원형성’이나 ‘정도성’으로 유정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유정성을 계층적이고 연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많은 학자들이 유정성을 위계화하는 논의를 한 바 있고³ 유정성은 통사적인 문법 범주나 어휘를 통해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즉, 언어학적인 유정성은 사물의 개념적인 속성이 아니며 개별 언어나 화자에 따라 언어적으로 유정화되는 사물의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⁴

특정한 개념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유정화되는 방식은 형태적, 통사적, 어휘적으로 나타난다.

- (2) 달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 (3) 가. 그가 책을 찢었다.
나. 책이 그에 의해 찢겼다.
- (4) 가. 나는 학교에 동생을 데리고 갔다.
나. 나는 학교에 책을 가지고 갔다.

² 유현경(2007)은 유정성 자질에 대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언급한 바 있다.

³ Silverstein(1976), Dixon(1979), Langacker(1991), Croft(1990), Foley and Van Valin(1985) 등.

⁴ 물론 유정성은 문법적인 개념이기에 앞서 의미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연재훈(1995)은 인식론적 개념으로 Yamamoto(1999)는 심리언어학적 개념으로 접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유정성이 한국어 문법에서 부호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정성의 개념을 다소 한정한다.

(2)에서는 무정물인 천체 ‘달’이 의인화되어 나타나는데 접사 ‘-님’⁵과 결합하여 유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사적으로 유정물 주어가 쓰인 (3가)의 문장이 의미가 동일한 무정물 주어가 쓰인 (3나)의 문장보다 자연스럽다. (4)에서는 목적어의 유정성에 따라 어휘가 다르게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정성이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유정성의 부호화(coding)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의 대표적인 유정성의 부호화의 예로 조사 ‘에게’가 있다.

2.2. 유정성의 부호화

조사 ‘에게’를 유정성의 부호화로 연구한 논의는 유현경(2007)과 김형정(2010)이 있다.⁶ 유현경(2007)은 조사 ‘에게’에 결합하는 명사의 유정성 자질은 화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김형정(2010)은 나아가 말뭉치에서의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조사 ‘에게’가 결합하는 체언 범주의 유정성 위계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전제는 조사 ‘에게’가 유정성이 부여된 명사에 결합한다는 것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과 같은 한국어 사전에서도 조사 ‘에게’에 대해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라는 문법적인 제약을 붙여 설명한다.

반면 조사 ‘에’는 ‘에게’와 이형태 관계에 있다는 논의(박양규, 1975 등)에서 주로 설명한 것처럼 무정물 명사와 주로 결합하는 것처럼 설명되었다. 그러나 유정물 체언에 조사 ‘에’가 결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5) 그 아버지에 그 아들.

(6) 가. 나에 맞는 직업을 찾다.

나.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다.

(7) 교원들에(/교원들에게) '뭇매'맞은 교육정책 (김형정, 2010: 185)

(5)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명사 ‘아버지’에 ‘에’가 결합한 예이다. (6가)는 (6나)와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데 ‘나’가 ‘나의 성격’이나 ‘나의 적성’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면 (6나)와 같은 문장도 성립할 수 있다. (7)은 김형정(2010)이 ‘문체적’인 것으로 제시한 예로 신문, 잡지의 기사에서 정물 체언에 조사 ‘에’가 결합하는 예이다.⁷ 유현경(2007: 269-270)은 서술어로 쓰인 ‘의

⁵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접미사 ‘-님’이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도 풀이되어 있다.

⁶ 이 두 논의는 조사 ‘에게’를 ‘에’와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고영근(2005)에서 의미론적, 문법론적 이형태 설정의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주장을 따른 것이다.

⁷ 문체적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조사 ‘에게’를 ‘에’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사 ‘에서’ 또한 ‘서’로 축약하여 사용된다. 아래는 뉴스의

하다, 관하다, 대하다, 따르다, 비하다' 등은 특정한 활용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정물 체언이 조사 '에게'가 아닌 '에'와만 결합이 가능한 예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반면 유정물 명사가 아니더라도 조사 '에게'와 결합한 예도 한국어에서 볼 수 있다.

(8) 꿈에게 추방당한 자.

(9) 가. 철학은 물질은 물리학에게 주고 하늘은 천문학에게 넘겼다. 대지는 지리학에게, 마음은 심리학에게 넘겨야 했다.

나. 그 논쟁은 심리학에게 이미 추월 당했는데..

앞에서 제시한 (1)의 예는 구체물인 '승용차'와 '조각상'에 '에게'가 결합한 것인 반면 말뭉치에서 나타난 (8)⁸, (9)의 예는 '꿈'과 '학문'을 나타내는 추상명사에 조사 '에게'가 결합한 것이다. 김형정(2012: 185)에서는 유정성 위계를 도식화했는데⁹ 이에 따르면 추상명사는 원형적으로 가장 유정성 위계가 낮음에도 (8), (9)와 같은 예를 한국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유정성의 부호화(coding)란 단순히 [±animate] 자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김형정(2010, 2012)에서도 제시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형성(prototype)'과 '정도성(degree)'의 유정성 위계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원형성(prototype)'과 '정도성(degree)'은 '유정물/무정물'의 이분법(dichotomy)보다 가변적이고 유연한 척도가 되지 만 (8), (9)와 같은 예는 유정성의 위계화의 화자의 선택성(selectivity)이 관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연역적으로 위계화한 유정성이 아닌 귀납적으로 '에게'로

헤드라인에 제시된 예로 선행 체언의 종성 유무와 관계없이 조사 '서'가 사용되었다.

ㄱ. 민주, 국회서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대회

ㄴ. 김연아 "한국서 하는 '레미제라블' 기대돼"

⁸ 엄밀히 말해 이 예는 구어 말뭉치에서 '꿈한테 추방당한 자'로 검색이 된 예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한테'와 조사 '에게'가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실현되는 환경, 즉 구어와 문어에서의 사용 양상에 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조사 '한테'가 사용된 예를 일부 사용하였다.

⁹ 김형정(2010)의 유정성 위계와 김형정(2012)의 유정성 위계는 추상명사에 대한 언급에서 차이가 난다. 김형정(2012)에서는 사태명사와 더불어 추상명사가 무정물 명사구에 포함이 되었다. 이는 추상 명사를 유정성 위계의 하위에 위치한 Langacker(1991) 등의 이론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식물명사를 김형정(2010)에서는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으로 언급한 반면 김형정(2012)에서는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명사구'로 분류하였다.

유정성이 부호화되어 나타난 무정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화자의 판단은 개별적인 화자의 개인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나 다양한 언어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말뭉치에서의 무정물 명사와 조사 ‘에게’의 결합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무정물 명사와 조사 ‘에게’의 결합형이다. 말뭉치를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조사 ‘에게’의 결합형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형정(2010)이 있다. 김형정(2010)은 아래와 같이 1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 용례를 분석하였으나 순수한 무정물 체언이 ‘에게’와 결합한 예는 17개에 불과하다.

표 1. 김형정(2010: 150)의 ‘에게’의 선행하는 명사구의 분포

| 유형(type) | | 빈도(token) | 비율(%) | | |
|--------------------------------------|---------------|------------------|-------------|-------|-------|
| 유정물 체언 | 사람 유정물 체언 | 사람 고유명 | 563 | 15.7% | |
| | | 인칭대명사 | 1인칭 대명사 | 511 | 14.2% |
| | | | 2인칭 대명사 | 35 | 1.0% |
| | | | 3인칭 대명사 | 241 | 6.7% |
| | | | 인칭대명사 기타 | 89 | 2.5% |
| | | 인칭대명사 합계 | 876 | 24.4% | |
| | | 사람 보통명사 | 사람 보통명사(일반) | 1,742 | 48.5% |
| | | | 사람 보통명사(집단) | 67 | 1.9% |
| | | | 사람 보통명사(친족) | 164 | 4.6% |
| | | 사람 보통명사 합계 | 1,973 | 54.9% | |
| | 사람 유정물 체언 합계 | 3,412 | 95.0% | | |
| |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 | 유사 사람명사 | 25 | 0.7% | |
| | | 동물명사 | 57 | 1.6% | |
| | |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 합계 | 82 | 2.3% | |
|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 (조직, 지역공동체, 식물명사 등) | | 80 | 2.2% | | |
| 무정물 체언 | | 17 | 0.5% | | |
| 합계 | | 3,591 | 100.0% | | |

김형정(2010)은 Yamamoto(1999)와 맥락을 같이하여 컴퓨터와 자동차를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로 판단하였다. Yamamoto(1999: 18)에서는 자동차가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운동 능력이 있다는 점, 컴퓨터

가 정보 처리 과정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컴퓨터나 자동차는 [-alive] 자질이 나타난다고 파악하여 무정물 명사로 보았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첫째, 인간과 유사한 속성은 지능, 감각, 동작, 통제 등 여러 속성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김형정(2010)에서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로 밝힌 지리학적 개체(geographical entities)나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ies)와는 컴퓨터와 자동차는 속성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컴퓨터나 자동차는 의인화가 가능하나 이것들에 적용되는 의인화는 다른 무정물에도 가능하다. 또 지리학적 개체(geographical entities)나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ies)는 인간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집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화되어 컴퓨터나 자동차의 의인화와는 다른 속성이 나타난다.

1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분석한 김형정(2010)에서의 무정물 명사와 조사 ‘에게’의 결합 예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300만 어절 규모의 균형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말뭉치는 국립국어원(2005)의 현대 한국어 빈도 조사에 활용된 바 있는 말뭉치¹⁰이다.

분석 결과 3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도 무정물 명사가 조사 ‘에게’와 결합한 예는 36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에게’와 결합한 무정물 명사는 다음과 같다.

물체, 엽전, 옷(3), 관(管)들, 농기구(2), 달님, 별(3), 별들, 군함, 뒗차, 승용차, 앞차, 차(3), 택시, 화물차, 바람, 파도(2), 불(佛), 인(仁), 불행, 여름, 인형, 장승, 조각상, 첼로(2), 컴퓨터(2), 문장들

말뭉치에서 조사 ‘에게’와 결합한 무정물 명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체 명사뿐 아니라 추상 명사도 나타나며 도구나 자연 현상,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도 나타났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예들은 의미 부류와는 별개로 화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명사가 선택적으로 유정적으로 부호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조사 ‘에게’로 부호화되는 한국어의 유정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4. 말뭉치 용례 분석

본 장에서는 무정물 명사와 조사 ‘에게’가 결합한 다양한 예들을 분석해

¹⁰ 이 말뭉치는 장르 비율을 고려한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용례가 적어 장르적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말뭉치 장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본다.

4. 1. 교통수단

말뭉치에서 조사 '에게'와 결합한 무정물 명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군함, 뒷차, 승용차, 앞차, 차, 택시, 화물차'로 나타났는데 '군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에 대해 Yamamoto(1999)는 원시적인 교통수단인 말을 대체하였다는 것에서 유정성을 표현할 수 있고 자동차 주인이 자신의 차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0) 가. 가는 그 택시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남아있는 힘을 다해 사력으로 돌리며 깡통을 사라지는 택시에다 던지는 불행한 죄수.

나. 버스는 가끔 전용 차선으로 끼어드는 승용차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칠게 움직인다.

(11) 결국 그때까지 사람에게 거수경례하고 허리 굽혀 인사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신고 왔던 '큰 차'에게 존경을 보였다는 말이 되니, 정도가 그 지경이면 자동차의 가치(?)는 이미 사람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1가)의 예를 보면 택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탑승한 운전자에게 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전자가 조종하고 있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의도성(intentionality)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10가)에서는 '택시에게' 깡통을 던지지 않고 '택시에다' 깡통을 버리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깡통을 던지는 피행위의 대상인 '택시'가 유정화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깡통을 던지는 피행위가 작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굳이 '택시'를 유정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운전자는 의도성을 투영하여 차에 대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처소적(localistic)으로도 운전자는 차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집단이나 장소 명사와 같이 소속되거나 소재된 사람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기도 한다. (10나)에서는 버스에 위치한 '버스 운전자'가 승용차에 위치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운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자동차는 소유자의 소유물로서 소유자와 밀접한 존재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는 높이는 대상의 소유가 되는 '집(택), 자식(아드님, 따님)' 등도 함께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11)에서는 자동차의 가치로 탑승한 사람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12) 조선보다 한걸음 먼저 개국한 일본은 자기들이 미국 군함에게 당

했던 대로 아시아의 이웃 나라에 양갈음을 했던 것이다.

(12)의 예는 자동차가 아닌 교통수단인 ‘군함’이 나타난 예로 같은 문장에 나타난 ‘조선, 일본, 아시아의 이웃 나라’로 유추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제유법(提喻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명으로 대치하여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의 의미적 속성이 사라지고 ‘미국’의 조직(organization)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4.2. 인간의 형상

‘인형, 장승, 조각상’ 등은 무정물에 속하지만 인간의 형상을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인간과 유사한 속성이 나타난다. 이는 유정성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인 ‘공감(empathy)’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Langacker(1991)은 공감의 위계를 설명하며 이는 ‘인간 중심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Langacker(1991)가 설정한 공감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화자 > 청자 > 인간 > 동물 > 물리적 사물 > 추상적 개체

인간의 형상을 한 무정물들은 Langacker(1991)의 공감의 위계에 따르면 ‘물리적 사물’로서 유정성이 떨어지는 셈이나 이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의 공감을 이끌어낼 잠재성이 무척 큰 사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앞에서 언급한 (1나)의 예문이다.

- (1) 나. 마침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에게 매료되어 있을 때에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호화로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등장하는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제작한 조각상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처럼 인간의 형상을 한 무정물은 인간의 감정이 투영될 수 있다.

- (13) (너구리집 할머니, 돌 인형에게 옷입히며) 할머니: 우리 아기 때 때옷 입으니까 ~ 더 예쁘네...

그렇기 때문에 (13)의 예문처럼 무정물인 ‘인형에게’ 옷을 입히며 ‘우리 아기’와 같이 인격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형상을 한 무정물들은 동작성이 없고 수동적이라는 점에서 유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물리적인 사물에 비해 유정화할 수 있는 경향이 클 수 있다. 또 인간의 형상을 하거나 인간의 형상이 그려진 종교적인 예술품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자연적 인 존재¹¹나 유사 사람명사¹²로 유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4.3. 천체

천체를 나타내는 명사는 유정성의 위계를 나타낸 여러 논의에서 언급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달, 별 해’를 의인화하여 높여서 ‘달님, 별님, 해님’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점에서 천체를 인격화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천체의 유정화는 천체의 초자연적 속성과 물활론적 사고(animistic thinking)와 관련이 깊다. 태양, 달 등의 천체는 인간으로부터 신적인 속성을 부여받아 왔다. 비록 인간의 형상과 거리가 있으나 신처럼 숭앙되며 신성(神性)을 획득해 왔다. 신성을 획득하는 천체는 신화에 한정되거나 신화에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활론적 사고¹³는 Piaget(1926/1955)가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물활론(animism)은 사물이 살아있고 의지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Tunmer(1985)는 Piaget(1926/1955)의 견해에서 나아가 무생물에 생명성을 부여하는 물활성과 무생물에 감정(sentiency)이 있다고 간주하는 추론된 물활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물활론(animism)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주로 나타난다.

(14) 단군신화에 따르면 단군조선 때 강화도 마니산에 참성단(瞻星壇)을 두고 별에게 제를 올렸다고 한다.

(15) 가. 당신은 달님에게 다가갔어요.

나. 별들에게도 감정이 있어 때론 기쁘고 때론 슬프고 울고 웃고 한다고 생각했다.

(14)의 예는 ‘별’에 신적 속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이다. (15)는 물활론의 예가 되는데 (15가)는 ‘달’에게 생명성을 부여하였으며 (15나)는 ‘별’에 감정을 부여한 것이다.

4.4. 컴퓨터

컴퓨터는 앞서 언급한 자동차와 더불어 Yamamoto(1999)에서 유정물과

¹¹ 유현경(2007: 266)은 초자연적 존재를 사람과 동등한 유정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였다.

¹² 김형정(2010: 161)은 덜 유정적이기는 하나 유사 사람명사나 동물명사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유정물 체언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¹³ Yamamoto(1999: 17)에서 재인용.

무정물의 중간적인 존재로 언급이 되었다.

(16) 가. 그녀의 메시지가 끝난 뒤 역시 그녀의 목소리를 내는
컴퓨터에게 오늘의 일정을 물어 본다.

나. 이제 컴퓨터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떠나면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16가)에서는 컴퓨터가 ‘목소리를 내며’ (16나)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Yamamoto(1999)가 이미 인간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기계로 지능과 운동 능력이 있는 컴퓨터와 자동차를 언급한 바 있으나 (16)에서는 ‘지능을 갖는 것’ 외에도 인간이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의미도 나타난다. 비록 컴퓨터는 [-alive] 자질이 나타나지만 현대인들에게 친숙성, 상호작용성이 강한 존재이다.

컴퓨터뿐 아니라 현대적인 기계에 유정성이 부여되는 예를 한국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다음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의 관용어 ‘밥(을) 주다’의 뜻풀이이다.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태엽을 감아 주다.

▶아침마다 시계에 밥을 주다.

아래는 <표준 국어 대사전>의 ‘죽다’의 한 의미 항목이다.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 시계가 죽는 바람에 늦잠을 잤다./라디오를 떨어뜨렸더니 죽어 버렸다.

이렇게 기계에 유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비유적인 것으로 유정물과 유사한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가 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인간의 능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나아가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점은 이러한 부류에 유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충분하다.

4.5. 일반 구체물 명사

4.3.에서 밝힌 바 있는 물활론은 일반적인 구체물 명사에도 적용이 된다.

(17) 가. 단말마의 비명조차도 그 첼로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나. 시달리는 낡은 관들에게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고서, 그는 영어 대본에 다시 마음을 모았다.

다. 그 헛간에서 농기구들에게 많이 구박을 당했었거든.

(17)의 예에서 구체물 명사들은 유정물과 같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로 의인화되며 추론된 유정성(inferred animacy)을 보인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작가의 선택에 의해 의인화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17나)는 ‘냇은’과 같이 무정물과 공기하는 어휘가 나타난다. 이러한 예는 구체물 명사가 완전히 유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¹⁴ 이러한 혼용에 대한 기준은 작가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엄밀하게 제시하기는 힘들다.

4.6. 추상 명사

앞서 밝혔듯 추상명사는 Langacker(1991) 이후로 유정화의 경향이 가장 낮은 부류로 인식되어 왔다.

- (18) 가. 이렇게 도는 불에게 말할 게다.
나. 이렇게 덕은 인에게 말할 게다.
- (19) 게다가 글이란 대개 순서적으로 읽히는 것이니까, 앞서의 문장들에게 당신은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잠깐 동안, 이미 약간의 불쾌한 충격을 느꼈음직하다.
- (20) 그러므로 가을은 여름에게 능욕당한 계절이었다.

(18)에서는 사상을 나타내는 ‘도(道)’와 ‘덕(德)’의 입장에서 ‘불(佛)’과 ‘인(仁)’에 사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인화한 것이다. ‘도(道)’와 ‘덕(德)’는 행위의 주체처럼 표현이 된다. (19)에서의 ‘문장’은 ‘독자’인 ‘당신’에게, (20)에서의 시간 명사 ‘여름’은 ‘가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다. 이렇게 ‘의인화(personified)’는 구체 명사뿐 아니라 추상 명사에서도 추론된 유정성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확장된 유정성은 Langacker(1991)가 설정한 원형적인 유정성 위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작가나 화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연구는 Yamamoto(1999), 유현경(2007), 김형정(2010)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유정성을 논의하였다. Yamamoto(1999)는 유정성에 대해 심리언어학적 배경에서 논의하였으며 유현경(2007)은 유정성 자질에 대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언급하였다. 김형정(2010)은 비유정물 명사에 ‘에게’가 결합한 예에 대해 의인화, 환유, 유정적 속성의 실현 등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귀납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유형론의 입장에서 수행한 연역적인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별 언어에서의 유정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이 연구에서도 유현경(2007), 김형정(2010)의 논의와 같

¹⁴ 유정물로 인식한다면 ‘냇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한국어 조사 ‘에게’가 유정성을 부호화하는 것으로 보고 무정물 체언이 조사 ‘에게’와 결합한 예를 귀납적으로 말뭉치에서 검색 후 분석하였다.

말뭉치에서 무정물 체언이 조사 ‘에게’와 결합한 예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교통수단’, ‘인간의 형상’, ‘천체’, ‘컴퓨터’와 일부 구체 명사, 추상 명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예들은 인간적 속성의 발견이나 대유나 비유, 물활론에서 비롯된 의인화로 유정성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의미 부류의 속성보다는 확장된 의미에 의한 것이거나 작가, 화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화자의 판단에 의해 유정성이 부호화된다는 유현경(2007)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정성의 부호화를 개별 화자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한국어에서의 유정성을 설정할 수 없겠으나 ‘자동차’, 인간의 현상,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천체’ 등의 유형은 유정적 속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말뭉치에서의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언어 사실을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정물 명사에 유정성을 부호화하는 조사 ‘에게’가 결합하는 예를 보다 큰 규모의 언어 자료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용례를 통해 한국어에서의 유정화의 원리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 『국어학』 46집, 19-52쪽, 국어학회.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집, 93-117쪽, 국어학회.
-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257-275쪽, 형태론학회.
- 김형정(2010),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언어사실과 관점』 26집, 141-195쪽,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김형정(2012), 「처격 조사의 결합 관계를 통해서 본 한국어 유정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연재훈(1995), 「기능-유형 문법에서의 분석과 설명」, 『언어학』 제17호, 203-230쪽, 서울: 한국언어학회.
- Mutsumi Yamamoto. 1999. *Animacy and Reference: A cognitive approach to corpus linguis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2nd ed. Oxford: Basil Blackwell.
- Foley, W.A.. and R.D. Van Valin, Jr. 1985. "Information Packaging in the Clause." In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Clause Structure, pp. 282-36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I: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Study on the animacy of Korean inanimate nouns combined with ‘ege’

Han ,Seung-kyu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inanimate nouns are recognized as animate nouns. Presupposing Korean postposition ‘ege’ represents an animacy of the preceding noun, the research analyzed examples of nouns which are combined with ‘ege’. Based on Yamamoto(1999)’s psycholinguistic discussion on animacy, Yoo(2007) and Kim(2010) discussed that postposition ‘ege’ is the marker of the animacy in Korean. Through inductive research, these studies improved existing deductive studies by position of the typological theory. Then they observed features of the animacy in individual language specifically. Sharing context with them, this research find examples of the inanimate nouns combined with ‘ege’ for analyzing inanimate nouns considered as animate. The study use balanced corpus as research materials, which is consist of 3,000,000 words. However, examples are a few. Preceding inanimate nouns are ‘means of transportation’, ‘computer’, ‘human shape’, ‘celestial bodies’, and some concrete nouns and abstract nouns. Causes that the of the preceding inanimate nouns recognized as animate nouns are ‘speakers’ intentionality’, ‘speakers’ empathy’, ‘nouns’ localistic characteristics’, ‘noun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nouns’ intellect ability and motor ability’. Besides inanimate nouns personified and inferred as animacy are recognized as animate nouns by speakers as well. Finally, through this study, animacy is determined by tendency speaker think. However, inanimate nouns are recognized as animate nouns by a judgment about their humane attribute.

Keywords: Animacy, Animacy Coding, Inanimate Noun, Corpus, Postposition ‘ege’